

글 _ 전홍윤(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나눔이 아름다운 사람들



“아 빠, 성공이 뭐야?” “응, 성공은 우리 딸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거야.”

요즘 모 기업 광고에 나오는 아빠와 딸의 대화 장면이다. 모두가 바라는 성공의 모습이 아직 어리

기만 한 딸에게는 맛있는 것을 많이 사줄 수 있는 ‘재미있고 좋은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이다.

사랑의 열매는 매년 나눔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들을 기리는 ‘이웃돕기유공자포상수여식’을 열고 있다. 올해도 일흔 일곱, 나눔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업인은 기업영역을 통한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었으며, 평균 연령이 77세가 넘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일 년 내내 폐휴지를 모아 어렵사리 마련한 기금으로 손자들의 장학금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북녘의 우리 동포에 이르기까지 국경과 이념을 넘는 나눔의 다양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삶은 보고 배우는 것

수상자 중에 장관표창을 받는 황기순 씨는 한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난 4년간 장애인에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8월 무더위 속에 전국순회모금캠페인을 계속해 270대 이상의 휠체어를 마련하기도 했다. 황씨 스스로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해준 역경과 고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 오히려 감사드린다’고 한 말처럼 나눔은 사람마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눔과 사랑에 대해서 순박하고 순결한 의미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이런 시상식이 그 분들의 소중한 정성과 사랑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사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 동안 묵묵히 나눔의 삶을 살아온 분들의 삶은 이미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인생의 훈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우리를 대신해 나눔을 실천해 온 분들에게 그나마 이런 자리라도 마련해 드리는 것은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삶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자는 뜻이다.

사회 각 영역에서 이어진 나눔의 행렬

이번 이웃돕기유공자들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사회의 나눔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훈장을 받은 롯데는 롯데마트 이용고객들의 포인트를 적립해 만든 ‘나라사랑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사회적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국민포장을 받은 웅진그룹은 도서보내기나 장학사업처럼 기업의 성격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을 20년 이상 꾸준히 실시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삼성은 ‘치명적 질병 예방’을 목표로 보충식품을 개발해 지난 3년간 1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경우도 방송매체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대전방송의 경우 ‘365일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독자 프로그램을 제작해 심장병,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연중캠페인을 펼쳐 40명이 넘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기업이나 언론사의 나눔 실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환갑 때 친척, 친지들이 전해준 부조금으로 밀가루 200포대를 사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진정한 잔치를 즐기신 충남의 박성하 어르신 사연은 어떨지. 그리고 지난 연말, ‘희망2005이웃사랑캠페인’을 통해 소개되었던 천안의 구두미회원 명덕식 씨는 좁디좁은 부스 바닥 장판에 가득 깔린 동전을 보이며 수줍게 웃던 분이다.

비록 모습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나눔으로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 나눔의 삶 그 자체가 어떤 훈장보다 더 빛나고 아름답게만 보인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으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훈장을 드린다.